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佛, 小佛 佛壇, 행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몸 마음 하나될때 신명나는 춤사위 나오죠"

산문밖의 승무

이애주 서울대 교수

◇이애주교수가 하얀 고깔을 쓰고 한삼을 휘날리며 천·지·인을 상징하는 승무의 엎고 제치기 기본 춤사위를 흩날리고 있다.

"승무는 몸짓으로 드는 나의 화두"

그 속엔 생로병사·우주이치 담겨

무용가 수련정도 따라 표현도 달라

"승무(僧舞)는 아무나 추나."

결코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다. 오로지 몸짓 수행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만이 고고한 춤사위를 흐뭇할 수 있다. 온갖 춤사위가 집대성 된 한국춤의 백미(白眉)가 바로 승무인 까닭이다. 하얀 고깔을 쓰고 추는 승무는 긴 한삼을 천천히 뿌려 모으며 웅크리다가 다시 펼치는가 하면, 일순간에 모아 제치며 비상하는 독특한 멋을 지녔다.

춤추는 이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합일돼야만 가능한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경지야말로 승무만이 보여주는 율동미의 극치다.

이애주 서울대 체육과 교수(55·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예능보유자)가 춤춘 세월 5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승무' 화두 하나에만 매달리며 몰두해온 이유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96년 승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이 교수는 그동안 스승인 한영숙(1921~1989)선생의 '법열곡'과 영산재의 식당작법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등 전통승무를 알리기 위해 고심해 왔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 진관사, 수원 용주사, 울산 자광사, 김천 직지사, 강화 전등사 등 10여 사찰에서 자선 춤공양 무대를 마련, 춤사위를 한껏 도량 곳곳에 흩날려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승무가 태어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웅전을 배경으로 춤공양을 하니 저절로 환희심이 우러났어요. 그러다보니 신심이 솟구쳐 춤사위도 허공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거룩한 합장(合掌)을 한 것처럼 오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때의 감흥이 되살아 나는 듯 간간히 춤사위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이 교수의 사찰 춤공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승인 한영숙 선생이 살아계실때는 스승과 함께 크고 작은 사찰행사에서 가끔 춤공양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스스로 팔을 걷어부칠 정도로 자발적이진 않았다. 12년전 스승의 위패를 직지사 은선암에 모셔놓고 내려오면서 언젠가 이곳에서 대중들을 위한 춤공양을 한 번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것이 흘러흘러 지난해에야 비로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벽사선생님께서는 온몸의 뼈마디와 피가 쉬일 정도는 돼야 올바른 춤이 된다고 늘 가르치셨죠. 그만큼 진정한 춤은 피나는 수련과 인고를 거쳐야만 잉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춤추는 것도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저는 화두를 '승무'로 들 뿐이지요. 몸 동작이 자신과 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춤은 일종의 '몸짓 수행'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승무'는 기교를 부리기 보다 모든 잡념을 떨쳐 버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춤 때 대중들도 함께 삼매에 들 수 있는 춤사위가 나온다는게 이애주 교수의 춤철학이다.

특히 '승무'는 정중동(靜中動)의 미적 구조를 넘어 돈오(頓悟)의 순간을 연상하게 하는 한국무용의 진수이기에 무용가의 법력(力)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돈독한 불심위에서 한동작 한동작 춤사위를 날리는 이애주 교수의 승무는 대중에게 저절로 신명을 불러일으키고 대중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력이 있다는 평이다. 그래서 이 교수는 사찰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문화행사의 단골손님으로 초청된다. 96년 불국사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행사로 열렸던 '나라굿 불국정토제'는 이 교수가 공연 말미에 동참한 수천명의 대중을 혼자 진두 지휘하며 탑돌이를 즉석에서 이끌어낸 일화로 유명하다.

"승무에는 인간 삶의 군상인 생로병사와 우주 자연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승무에서 '승(僧)'이란 '대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나 자신을 포함한 '온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승무'는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타인과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선입니다. 따라서 '승무'는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조화되지 않으면 춤이 될 수 없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한때 이 교수의 춤은 시국춤으로 통했다. 그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발언도 무용가의 또다른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화 시위가 있는 현장에는 항상 그의 춤도 함께 있었다. 특히 민주화 항쟁이 한창인 87년 6월 시청앞에 모인 1백만명의 시민앞에서 강렬한 춤사위로 민중들의 맺힌 한을 펼쳐낸 '바람맞이' 춤은 지금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돼 있다.

"승무는 몸짓 언어로 표현한 불립문자입니다. 그 속에는 끈질긴 생명력과 역동성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얽히고 설킨 업연의 실타래를 기품있고 고고한 자태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춤사위가 곳곳에 들어 있기도 하지요. 이 모두가 우리 민족이 이어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승무속에 나타난 이런 춤정신을 대중들에게 보급시켜 안분지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바로 춤꾼의 몫이겠지요."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승무를 가르치며 불교춤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곳에서는 춤동작 뿐만 아니라 춤 속에 녹아있는 정신도 함께 전수되고 있다. 그 정신은 바로 마음을 비우고 일체잡념을 없애며 선정삼매에 들 때만이 비로소 신명나는 춤사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강생들이, 춤속에서 배운 선정삼매의 정신을 생활속에서도 소중하게 적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올해도 이 일은 계속해 나갈 작정이다.

도 올 하반기에 전국 사찰을 돌며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공연과 정기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해온 승무에 관한 자료를 모아 책도 한 권 펴낼 생각이다. 하지만 이애주 교수의 가장 큰 바람은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 규모의 행사에서 승무를 통해 한국춤의 진수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여기에 한가지 서원을 더 얹는다면 장삼과 가사, 하이얀 고깔, 외씨버선 등을 싸들고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 '승무 홍보대사'로 직접 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1971년 영동 교습소에서 스승인 벽사 한영숙선생에게 승무 전수를 받고 있는 이애주교수(오른쪽)

이애주 교수는

1947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애주 교수는 8세의 어린 나이에 국립국악원 김보남 선생에게서 무용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다.

그 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거쳐 69년부터 승무를 집대성한 한성준옹(1874~1941)의 손녀 벽사 한영숙 선생의 문하생이 돼 본격적인 승무 수업을 받는다. 이후 78년에는 승무 이수자가 됐고, 77년부터 81년까지 5년간 미국과 유럽지역을 순회하며 한국 전통춤 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83년 공간사랑의 '한영숙류 이애주 전통무용' 공연은 중간 결산과도 같아 한영숙 선생의 맥을 잇는 후계자로 공인받았다.

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수백회에 걸친 국내외 행사장에서 승무를 비롯해 살풀이, 도당굿춤 등 한국춤의 진수를 널리 알렸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